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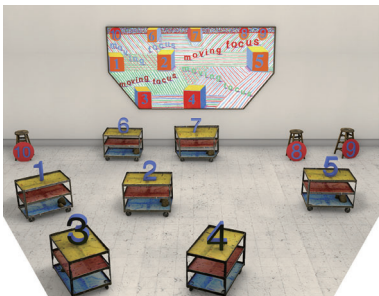
원화부터 에디션 판화까지 거장들의 섬세한 손길 전달



천경자 작 '노오란 산책길' (1983)



줄리안 오피 작 'Old Street Man bun'



데이비드 호크니 작 'Focus Moving'

은 색감이 꽃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크리스티 홍콩에서 14억 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돌파한 물방울 회화의 거장 김창열(1929~2021), 한국미술시장의 확장고 세계화를 이끌어온 단색화의 대표 작가 박서보(1931~), 이우환(1936~), 정상화(1932~), 하중현(1935~), 문인화 전통을 현대예술로 계승한 이강소(1943~), 한국화의 현대화에 앞장선 이용노(1904~1989), 미디어아트 의 창시자 백남준(1932~2006),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경자(1924~2015),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 2012년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야요이 쿠사마(1929~)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인종 하에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는 에디션 작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트샵에서 20여 년 전통의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 광주·전남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문의 062-360-1271. /이연수 기자

광주신세계 갤러리 'Limited Art Fair...' 유명작 40여점 전시 한정판 소장 기회도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야요이 쿠사마, 줄리안 오피, 김창열, 박서보, 백남준, 이강소, 천경자... 이름만 들어도 핫한 '빅네임'들이 모였다. 광주신세계 갤러리가 9월을 맞아 특별한 아트페어를 선보이고 있다.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원화 작품뿐만 아니라, 섬세한 기술과 고품질의 재료를 이용해 원화의 작은 디테일까지 옮긴 에디션 판화까지 만날 수 있는 'Limited Art Fair: 아트 컬렉션의 시작'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역 미술애호가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으로 김창열, 이강소, 이우환, 정상화, 하중현,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줄리안 오피 등 미술시장 빅네임들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는 대한 전시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줄

광주시향 '러시안 댄스' 16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V '러시안 댄스(Russian Dance)'가 오는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GSO 오티움 콘서트 다섯 번째는 광주시향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러시아 발레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광주시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의 해설로 진행한다. 첫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주요 모음곡을 발레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손꼽힌다. 두 번째 무대는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들려준다. '불새'는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 중 최초 발레 음악이자 출세작이다. 티켓은 전석 1만원(8세 이상 관람)이며,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대한민국 창극제' 온라인 개최

남도 판소리 부흥을 위한 대한민국 창극제가 전남 도내 시·군에서 열린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4개 공연장에서 2021 대한민국 창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의 '남도문예트렌드' 비교 우위자원 12개 중 하나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창극의 대중화를 위해 5개 민간예술단체 공연, 1개 국·공립 초청공연으로 구성됐다. 5개의 민간예술단체 공연으로는 춘향가를 모티브로 풍자와 해악이 담긴 창극 '암행어사', 우리나라 전통 무속음악을 베이스로 퍼포먼스와 연극을 가미한 창작 국악공연 '당산 신나무의 노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아가페적 사랑을 노래한 음악극 '꽃기타마고', 이창준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한 소리춤극 '서편제', 심청가를 기반으로 오페라형식을 가미한 소리창극 '향후심정'이 무대에 오른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예방을 위해 이번 창극제는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전남문화tv')로 비대면 공연을 추진한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전남문화재단 및 남도소리올림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지쳤다면 오감 정원서 산책 어때요?

ACC 야외서 '감각정원...' 연말까지 미디어파사드 전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다면 어디든 갈린 정원에서 오감으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여유와 자유를 느껴보면 어떨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정원에서 미디어아트와 음악을 만나고 시와 향기, 에메랄드빛 반딧불과 다채로운 달빛을 즐길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외벽영상 아광전당 전시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한 전시엔 8인의 미디어아트 작가와 시인 하상욱이 참여했다. '흐름'을 열쇠말로 변화와 생명의 의미를 내포한 작품을 ACC 공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 특장형 현대미술품을 선보인다. 먼저 하늘마당의 푸른 잔디 위에서 청각과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오도함 작가의 '당신의 피부가 듣는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관람객이 디스크자키(DJ)가 돼 선곡한 음악을 야외 공간 일대에 울려 퍼지도록 들려준다. 관람객은 작품의 진동을 경험하면서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음악이 갖

는 공감의 힘을 체험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번 출입구 인근 소방도로에선 110m에 이르는 다채로운 외벽영상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역동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용세라 작가는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시로 유명한 하상욱 시인과 협업해 공감력을 극대화한 외벽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최성환 작가의 '시작의 계곡'은 3차원 입체 이미지를 벽면과 바닥에 투사해 관람객이 가상공간을 산책하도록 유도한다. 빛·물·불의 세 가지 요소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신화를 창작, 매체예술로 풀어냈다. 문장환 작가는 동양의 역사와 메타버스 개념이 융합된 매체예술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시주팔자 명시를 모듬으로 재현, 관념적인 자연의 풍경을 3차원 이미지로 보여준다. 관람객은 살아있는 아바타가 돼 풍경을 방문하도록 현실공간에 초대받는다. 열린마당 일대에서는 향기 나는 비누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신미경 작가의 작품 '香水(향수)와 鄉愁(향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향기와 기억의 상관관계를 통해 후각적 요소를 감각정원에 끌어들이는다. 이밖에 고기영 작가의 '에메랄드빛 숲'은 만물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녹색의 경관조형으로 눈길을 끈다. /이연수 기자



고기영 작 '에메랄드 빛 숲'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천년의빛 영광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